

한 가지 안에 있는 모든 것

창세기 22:6-18, 마가복음 10:17-31

최정웅 목사님

많은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도 이것을 잘 못 누리면서 이상하게 실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다. 경제에도 그렇고, 학업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아직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아직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무를 벗어던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직도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함정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나를 막고 있는 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울무가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뜻이 있다. 이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인데, 뭔가 안 되도록 계속 함정에 있으니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도록 벽에 둘러싸여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모든 울무와 함정과 벽을 이기는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찾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에 대해서, '오직'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1. 울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심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심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목상할 내용이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17-31의 말씀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했다. 뭘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러나 뭘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도 다 지켰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사실 다 지켰다는 것도 거짓말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는가. 욕만 해도, 마음 속에 미워하지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대단하구나 하면서 말씀하셨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 울무를 보신 것이다.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울무가 되어 있음을 본 것이다. 복음을 절대 못 붙잡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다.

(2)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과 나에게서는 무엇이 올무인가.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계속 울무가 되어 응답의 문을 막게 된다. 그것이 물질일수도, 이성일수도, 명예일수도, 자녀일수도, 부모일수도, 부부일수도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원수는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울무로 만든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울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바늘구멍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좁문'과 같은 말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나도 목회를 40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저 분은 한 뭇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분은 안 하더라. 물질이 그만큼 쉽지 않다. 노희의 어떤 목사님에게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벤들리 자동차를 사 드렸다고 한다. 그 차를 탔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등 뒤에서 그러더라는 것이다. "목사가 무슨 벤들리를 타니까?" 나도 외국 차를 타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차가 많은데 목사가 이렇게 타는 것이 마땅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양심이기도 하고 종교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청년들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다. 너무 사랑해서, 돈을 모아서 사서 드린 것이다. 그 전에는 렉서스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벤들리라고 하니,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걸 어떻게 타나 싶어서 웃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게 울무가 되어서, '이 교회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시험이 되고 울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사준 것을 보고 욕을 하느냐' 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다 가난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가? 그 말이 아니다. 당장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했다. 100배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난이 꼭

축복인 것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게 애국자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때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세금을 내 보니까 세율이 43%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니까 1년에 18%정도밖에 안 내더라. 이리 퍼를 내고 저리 퍼를 내어서 세금을 피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 외국은 부자들을 존경한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되었겠느냐 하고 존경한다. 또 그 부자들은 많이 내놓는다. 번 것을 거의 다 내놓는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하는데, 질세가 아니라 탈세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었다. 유일한 씨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에 다 환원했다. 적게 내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다. 많이 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은퇴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재물이 울무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이 재물이 울무가 되더라.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재물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울무가 된 것이다. 복음 아닌 어떤 것으로도 계속되는 실패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의지하고 복음만 사모하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보고 결론난 사람이라고 한다. 보니까 결론을 안 내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인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 안 되게 하는 울무를 발견하시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란다. 오직 예수 못 하게 하는 나의 울무는 무엇인가. 지식인가. 바울은 그것을 똥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 유명한 가문의 배경이 배설물이었다고 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다.

(3)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모든 영적인 문제, 근본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 버리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14에,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세운 놋뿔을 바라본 자는 다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저게 의학도 모르면서, 독사 불뿔에게 물린 병을 어떻게 놋뿔 바라본다고 산다고 하느냐? 저 나쁜 자식!" 이런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요?" 하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계속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한다. 울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도록 하셨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일심을 회복하는 길이, 울무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일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내 일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2.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전심

큰 두 번째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전심을 누리는 것이다.

(1) 마가복음 10:32-45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저희를 하나는 주님의 보좌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세워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청탁을 한 것이다.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열 제자가, 저희만 어떻게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왜 나서느냐 하고 다문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현장의 모습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천명, 소명,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리다. 지금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싸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국회의 계속 싸운다. 노사가 또 싸운다. 이러다가 어느 날 멸망해 버리는 것이다. 복음과 진도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이 시대의 큰 함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

(2)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골로새서 3:1-2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욕심부리는 것이 전부 땅의 것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된 투자라는 말이다. 땅의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더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땅의 것 때문에 집착하는 바보같은 인생을 바꾸라는 것이다.

(3)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일심의 사람이다. 이제부터 땅의 것을 바라보는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도록 전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전

심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3.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 - 오직 성령충만을 붙잡는 지속

마지막 세 번째다. 어떻게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오직 성령충만을 붙잡는 지속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의 세 번째 주제다.

(1) 마가복음 10:46-52에 보면 맹인 바디매오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경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때의 복지 수준으로는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운명에, 재앙에 부딪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란다.

(2) 이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바울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18에서 말한다.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무너진다. 모든 한계는 무너져 버린다. 모든 벽은 무너진다. 램프들을 붙잡고 있는 학업의 벽이 무너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모든 가난의 벽, 모든 질병의 벽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하루, 한 주간, 일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란다. 이번에 펜싱 선수 하는 것을 봤지 않나? 4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상대 선수는 게다가 네 번째 금메달을 노리는 선수였다. 1점만 더 빼앗기면 지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극적으로 역전을 한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다. 여기 한국체육대학의 3학년 학생이더라. 우리 인간의 노력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이 준비할 수 없었다. 아들을 죽여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3) 성령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지속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것이다. 사도행전 1:14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4의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지속이다. 바디매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다, 말씀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소리쳐 부른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여,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는 의미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나무랐다. 그랬더니 바디매오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속했다. 계속 불렀더니 주님이 발을 멈추셨다. 주님의 시선이 멈추도록 하라. 주님의 발이 멈출 때까지, 주님이 나를 향하실 때까지 그 이름을 불러 보라. 그때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옆에서 양이 '메'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맛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라. 나도 밴틀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차를 사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더 좋은 차를 샀을 텐데, 괜히 내가 급했구나 싶었다. (웃음) 그 목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싶었다.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집도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차도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웃음)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기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들하고 같이 살면 된다. 그 사람들은 똥으로 집을 짓고 살더라. 거기에서 경건하게 살면 된다. (웃음) 초대교회의 성자 시므온처럼 기둥 10미터 세워놓고 그 위에서 살면 된다. 나는 정말 의문인데, 거기에서 대소변 처리는 어떻게 했나 싶다. 밥은 밑에서 올려다주니까 됐지만, 그 사람이 평생 거기에서 안 내려오고 살았다. 그 사람을 기둥 성자라고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다.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밥 잘 드시고 전도했어야 하는데. (웃음) 너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참사랑 가족들이 성령충만을 지속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아야 한다. '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변한다.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

은 믿음이라고 했다. 행해야 산다는 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성령충만이 체험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체질도 뿌리도 각인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신령한 은혜와 체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한다. 진정한 자유의 세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가 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란다.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을 누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울무와 함정과 벽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한다. 결국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발견하고 버리면 된다. 무너뜨리면 된다. 짹짹 놀라서 이런 것이 있었다니 하고 무너뜨리면 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은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100배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목회를 하려고, 서울에 장로회신학대학을 가려고 올라왔는데, 이불 한 채만 가지고 올라왔다. 가진 게 없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하려고 해 봤지만 아무도 써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결혼반지를 팔고 우유배달을 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우유배달을 하는데, 앞쪽에는 먹은 병을 수거하고 뒤에는 새 우유를 담아서 배달을 하며 다니니까 균형이 잘 안 맞았다. 힘들게 가다가, 한 번은 결국 넘어져서 우유 유리병이 다 깨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 치우느라 유리 조각에 찔려서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다. 도저히 할 일이 아니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미 저를 다 드렸잖아요. 저를 교회로 보내주세요. 어디라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고 싶어요.' 진심으로 기도했다.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교회를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시골 초등학교 동창인데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다. 가보니까 '유익'이라는 장로님이 정착된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 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유리창도 없어서 비닐로 창을 막아놓은 교회였다.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6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가불을 받은 적도 없고, 성도에게 돈을 벌린 적도 없다. 30개 교회까지 도와 보았다.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군대를 갔는데, 부대 근처 민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고 헌금을 하는데, 군인이 돈이 없지 않다. 그래서 내 친구 행정계원에게 가서, 나에게 배당된 3일치 식량을 달라고 했다. 쌀과 보리 아홉 끼 분량을 받아서 팔아서 헌금을 했다. 3일 동안 굶으면서 집회를 참여하고 헌금을 한 것이다. 낮에 군에서 근무하면서 할 일은 다 하고 밤에는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목사 해도 될 만하지 않나. (웃음)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것 같다. 그 외에도 그런 일이 많다.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여러분, 한 가지에 올-인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이 올-인을 하지 않는다. 자꾸 결눈질을 한다. 그러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우리가 올-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마가복음 10:45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누리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너무 고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20년 후에는 세계일주 여행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게 희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지순례와 미국 일주는 시켜 줬다. 대단하지 않나? (웃음) 내가 괜찮은 남자다. (웃음) 건강하기만 하면 유럽도 보내줄 텐데. (웃음) 여러분, 그리스도께 정말 올-인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보장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울무를 벗어버리고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둘러싸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보좌 우편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겠다. 주님 바라보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과 함께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답이신 주님,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울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울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벽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 벽도 넘어설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 했다 칭찬받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